

광주일보 3·1절 마라톤 D-4 “우리도 함께 뛰다”

양심교육연구회

“인성, 미래 삶을 지배하는 덕목”
교육 중요성 홍보·시민 참여 촉구

“시민과 함께하는 인성교육을 위해 한창
달리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성교육운동을 펴고
있는 양심교육연구회(회장 김두한)가
광주일보 제49회 3·1절 전국 마라톤대회에
대대적으로 참가한다.

양심교육연구회는 인성교육 운동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시민들의 참여를
촉구하기 위해 이번 마라톤대회에 70여명의
회원들이 참가하기로 했다. 이들은 유니폼을
입고 달리면서 마라톤 참가자들은 물론
시민들에게 인성교육을 되돌아보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성교육 홍보활동을
다양하게 펼칠 계획이다.

연구회의 목적은 교육의 가장 기본
요소이자 출발점인 ‘인성교육’을
확산하는데 있다. 인성교육이 학교
폭력 등 청소년문제를 해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 삶을 지배하는
덕목이라는 것이다. 더 나아가
수평적인 네트워크 시대에
필요한 리더십을 함양하는 데도
인성교육이 필수적이다.

“마라톤은 인내 배우는 인성교육의 장”



양심교육연구회 회원 70여명이 3·1절 마라톤대회에 참가해 시민과 함께 뛰며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겠다고 각오를 다지고 있다.

김두한 회장은 “인성교육을 통해
양심을 함양해 나간다면 보다 밝고
아름다운 사회가 될 것”이라며
“이번 마라톤대회 참가를 계기로
인성교육운동이 우리 사회에 널리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구회는 주 5일 수업이 본격화된
만큼 가정에서 인성교육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있다.
가정과 부모가 누구보다

자연스럽게 인성교육을 실천에
옮길 수 있기 때문이다.

등교에서부터 교과 공부,
특별활동, 점심시간, 청소,
하교에 이르기까지 학교의 모든
공식·비공식 교과과정이
인성교육의 장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교사와
학생들 사이에 배려관계가
형성되면 교사가 인성교육의
모범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고문을 받고 있는 양정일 전
조선대 총장은 “한국투명성기구가
중·고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감옥에서 10년을 살더라도
10억원을 받게 된다면 부패를
저지할 수 있다는 응답률이
17.7%에 달했다”며
“인성교육이 얼마나 시급하고
중요한지 우리사회가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KT 호남네트워크운용단

호남권 유·무선망 통합 관리

통신망 시설 제어 ‘KT 119’

KT 호남네트워크운용단 마라톤
동호회 회원들이 24일 광주일보
3·1절 마라톤을 통해 “1등 품질로
시민들에게 보답하겠다”고
포부를 드러냈다.

지난 2004년 결성해 올해로
10년째 광주일보 3·1절 마라톤
대회와 인연을 맺고 있는
KT 호남 네트워크운용단
회원들은 “3·1절을 기리는
광주일보 마라톤 대회를
준비하며 한해의 건강을
챙기는 만큼, 회원들의
행복과 즐거움을 위해
올해도 최선을 다해
달리겠다”며 “회원 간에
다져진 협동심을 바탕으로
갑오년에도 ‘고객감동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24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KT 호남네트워크운용단
마라톤 동호회는 선이 넘은
나이에도 울트라마라톤(100km)을
완주한 이상천(52) 매니저를
비롯, 풀코스를 3시간대에
완주하는 40~50대 실력파들이
모인 클럽이다. 이들은
3·1절 마라톤 대회를 앞두고
추운 날씨에도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매주 2회씩
모여 합동훈련을 펼치는
가 하면 무등산에서 오르막
달리기 연습도 꾸준히
진행

“1등 건강에서 1등 서비스 나오죠”



24일 KT 북광주전국에서 KT 호남네트워크운용단 마라톤 동호회 회원들이 광주일보 3·1절 마라톤 대회 참가를 앞두고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하는 등 좋은 결과 위해
담금질을 하고 있다.
윤병삼(52) 마라톤 클럽
회장은 “마라톤 대회는
회원들 물론 응원을 위해
경기장을 찾은 가족까지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라며 “건강과 가족을
위하는 마라톤 동호회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형필(48) 호남네트워크운용단
매니저는 “너무 힘들어 포기하고
살다가도 골인 지점을
통과할 때 느끼는 희열은
1등으로 들어온 것 못지
않다”고 마라톤의 매력을
설명했다.
“광대역 LTE”로 이동통신사의
경쟁에서 선두로 나선
KT는 올해 LTE 서비스
경쟁력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1등 네트워크

기업’답게 회원들도 올해는
저마다 기록 경신에
도전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KT 호남네트워크운용단은
광주·전남 및 전북지역의
휴대전화·케이블·인터넷
등 유·무선망을 통합
관리하고 통신망 시설을
제어하는 등 ‘KT 통신의
119’ 역할을 하고 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엠마우스집

광주시 지원 전국 최초 그룹홈

성인 지적장애인 자립 교육

“다함께 될 수 있다는 것도 기쁨이죠.
안주를 목표로 최선을 다할 겁니다.”

엠마우스집(원장 정정자) 장애인과
가족, 직원 40여명은 이번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
대회에 참가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기 완성과 공동체 의식
실현에 다시 나섰다.

성인 지적장애인이 그룹홈
형식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고 있는 엠마우스집의
도전은 2012년 ‘사회 통합’이라는
신념으로 시작된 이래
매년 마라톤대회 참가로
이어지고 있다.

엠마우스집은 2010년부터
광주시의 지원을 받아
전국에서 최초로 소규모
거주시설을 지역사회 안에서
공동주택(30명 정원) :
광주시 북구 소재 아파트(8채)를
마련해 그룹홈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직원 문송(여·26)씨는 “지적·
자폐성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한 시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도록
지원한다는 취지가
좋아 참가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 다시 뛰게
됐다”며 “즐거움 마음으로
뛰는 만큼 하나의
잔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의식주를 같이 하기 때문에
서로를 ‘식구’

“더디지만 함께’ 행복한 도전”



지난해 12월 광주시 북구 운암동 그랑시아웨딩홀에서 엠마우스그룹홈과 엠마우스집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송년하마당 기념 촬영을 하며 우의를 다지고 있다.

라고 표현하는 이들은
매년 참가해 달리기
노하우도 생겼으며 서로의
상태를 보완하는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낮 시간에는 일반 직장이나
보호작업장에서 일하고
오후 늦게 귀가하는
생활을 하다 보니
준비하는 시간이
많지 않다

앞두고 매일 꾸준히
훈련하니 체력
단련은 물론 정신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번
참가 역시 다함께
완주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만큼
각각 또한 대단하다.

엠마우스 보호작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민정(여·39)씨는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

만큼 포기하지 않고
완주해 당당한
모습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일명 ‘간지 미남’으로
불리는 반남영(40)씨 역시 “건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뛰어보겠다”고
자신감을 내보였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이석래 평창군수가 24일 오전(한국시간) 러시아 소치 해안클러스터의 피시트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열린 제22회 소치 동계올림픽 폐회식에서 토마스 바흐 IOC위원장으로부터 대회기를 전달받은 뒤 힘차게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평창을 기약하며...”

소치 선수단 오늘 귀국 ‘해단식’

‘피겨 퀸’ 김연아 등 2014 소치동계올림픽에
참가한 한국 선수단이 25일 귀국한다.

선수단은 이날 오전 전세기편으로
러시아 소치 공항을 출발해 오후 3시 인천
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한국은 22회째를 맞은 이번 동계올림픽에
역대 최다인 71명의 선수가 출전,
금메달 4개 이상을 획득해 3회 연속
종합순위 10위 안에 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금메달 3개, 은메달 3개,
동메달 2개를 따고 종합순위 13위로
밀려 목표 달성에는 실패했다.
이날 귀국하는 본단은 김재열 선수단

장을 포함한
본부 임원과
종목별 선수·
지도자 등
약 90명이다.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500m에서
올림픽 2연패를
이룬 이상화(서울시청),
쇼트트랙 여자
3000m 계주와
1000m에서
우승해 2관왕에
오른 박승희(화성시청),
쇼트트랙에서
금·은·동메달
하나씩을
수확한 심석희(세화여고) 등이
포함됐다. 논란이
된 판정 탓에
은메달을
목에 걸어야
했던 ‘피겨 퀸’
김연아도
함께 귀국한다.

대한체육회는
본단이 입국하면
바로 인천공항
1층 밀레니엄을
야외무대에
서 선수단
해단식을
개최한다.
/*연합뉴스

IOC위원 도전 김연아, 위원장과 만남

2014 소치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피겨 여왕’
김연아(24)가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과 만났다.
김연아는 23일(현지시간)
러시아 소치의 IOC 위원
공식 호텔에서 바흐
위원장과
면담을 했다. 이 자리에는
김연아와 함께
2012년 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에서
열린 제1회
동계유스올림픽을
거쳐 소치올림픽에
출전한 선수
60여명 가운데
3명이
동석했다.

김연아는 1회 유스올림픽
대회 때부터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모임은
전임 자크 로게
위원장 시절부터
IOC가 ‘올림픽
정신’의
새로운
확산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운영해
온 유스올림픽에
출전한
뒤 성인 무대



에서
구한 ‘올림픽
피어’
된 선수들이
모인
특별한
자리인 셈이다.

이 자리에서
바흐 위원장은
김연아와
선수들에게
앞으로
도 새로운
시도를
계속할

유스올림픽에
관한
아이디어를
구현
하도록
알려졌다.
그러나
김연아
측은
이 자리가
소치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에서
벌어진
‘판정 논란’이나
IOC
선수위원
출마
등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안현수, 美 NBC 선정 ‘소치 MVP’

러시아 국적을
새로 얻어 소치
동계올림픽
3관왕에
오른 안현수(러시아
이름 빅토르 안)가
미국 방송
NBC가
선정한
이번 대회에서
가장 빛나는
활약을
펼친
선수에
뽑혔다.

미국 NBC는
24일
폐막한
소치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
‘베스트 14’를
선정해
순위를
발표했다.

쇼트트랙
남자
500m와
1000m,
계주에서
금메달
3개를
목에
건 안현수는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금메달
2개와
은메달
3개를
획득한
이레인
뷔스트(네덜란드)를
따돌리고
NBC가
선정한
‘최고의
선수’
영예를
안았다.

동상에
선수로
이번
대회
첫
메달을
따내
화제가
되기도
한
뷔스트는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
3000m와
팀
추월에서
금메달을
따냈고
1000m와
1500m,
500m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대회
2관왕에
오른
노르웨이의
바이
애슬론
선수
올레
에이나르
비에르달렌이
3위에
올랐다.

한편
유럽
스포츠
전문
매체
유로스



포츠는
비에르달렌과
마리트
비에르덴(노르웨이)을
이번
대회에서
가장
빠어난
활약을
펼친
남녀
선수
로
각각
선정했다.

비에르달렌은
이번
대회에서
동계올림픽
사상
개인
최다
메달
기록을
세웠다.
비에르달렌은
바이애슬론
남자
스프린트
10km와
혼성
계주에서
금메달을
따내며
2관왕에
올라
동계올림픽
개인
통산
메달을
13개로
늘렸다.

여자
선수
중에서는
크로스컨트리에서
3관왕에
오른
비에르덴의
활약이
빛났다.
비에르덴은
올림픽
통산
금메달
6개,
은메달
3개,
동메달
1개를
따내
여자
선수로는
역대
최고
성적의
주인공
이
됐다.
/*연합뉴스